

에너지 전환정책 성공 위한 衆智 모은다

지속가능 전력산업 포럼, Kick-오프 회의
한전 등 공공기관·학계·업계 등 의견 수렴
요금 현실화, 합리적 소비구조 마련 등 지적



1월 30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 전력산업 포럼' Kick-off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적인 달성 방법과 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 혁신방식을 논의할 '지속가능 전력산업 포럼'이 첫걸음을 뒀다. 지속가능 전력산업 포럼은 1월 30일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온실가스 감축, 그린 프라이싱 등 국가적 책임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력산업계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리드하기 위해 구성됐다. 포럼에는 문재도 위원장을 비롯해 단원직 위원인 김중갑 한전 사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위촉직 위원인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온기운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정수 삼정KPMG 상무, 김연화 소비자공약네트워크 회장, 홍해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제남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

간위원, 민간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김시호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대표,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대표 등이 참여했다. 간사는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이 맡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관련 도매가격연동제, 요금체계 개편 방향'과 '산업용·주택용 요금개편 추진경과' 등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포럼에서 민간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40년 간 전기공사업계

몸담아 오면서 소중한 전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한전도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과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문재도 지속가능 전력산업 포럼 위원장은 "앞으로 포럼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여론 조성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배 기자 pjb@

신개념 부이 본격 개발...해수전지 '일등공신'

(GPS·LED조명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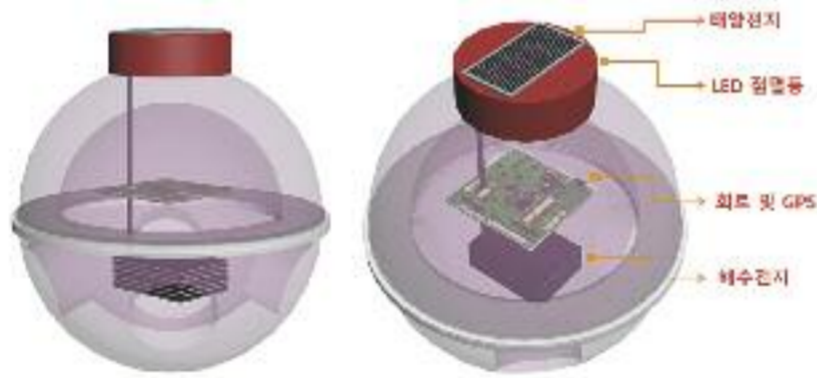
동서발전, 태양광·ESS 기술 이용
연내 울산지역 어민들 대상
800개 보급 목표

해수전지 기술 발달로 인해 앞으로 GPS와 LED조명이 탑재된 신개념 부이가 보급될 전망이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지난 1월 30일 '해수전지 기반 에너지 독립형 어망용 GPS 부이 개발 및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핵심기술인 해수전지는 바닷물에 포함된 나트륨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 이하 UNIST)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10kWh급 해수전지 ESS를 준공한 바 있다.

이후 동서발전은 울산시, UNIST와 함께 신개념 부이 개발에 착수했다. 신개념 부이는 해수전지, 태양광, GPS, LED조명 등 여러 기술을 융합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해수전지에 저장하고, 이를 GPS와 LED조명에 공급한다. 동서발전은 올해 안에 지역 어민들에게 어망용 부이 800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해수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해양 첨단기술을 구현해 새로운 개념의 부이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수전지 상용화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울산을 거점으로 해수전지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수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에서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기 인턴기자 mkchang@



동서발전이 공개한 '해수전지-GPS가 결합된 부이' 모습도.

/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설훈 민주당 의원 "전자파 관리할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해야"

김윤신 교수 "지중선로, 전자파 조사 미비...환경평가서도 제외"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간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이훈·송갑석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는 경관 문제와 전자파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돼왔다"면서도 "전자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며 지중선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때 땅속에 매립하는 깊이는 통상 1.2~2m에 불과하다"며 "전자파 차폐시설을 하지 않으면 지중화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실질적으로 지상 수십m 높이에 위치하는 송전탑에 걸린 송전선로의 전자파 세기보다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과 그로 인한 전자파 노출 실태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해 국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면서 "여러 전문가의 활발한 논의 속에서 전자파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회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고압송전설비 신규 설치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안정적 전

력공급 필요성과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특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전자파 노출 범위 관리 등에 대한 평가 규정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김윤신 석좌교수가 발제 및 좌장을 맡아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설명한 가운데 유재국 국회의원조사관이 '송전선 지중화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을 발제했다. 김 교수는 "장기간 지상에 설치된 고압송전설비는 경관 문제 및 전자파 노출 등의 이유로 최근 땅속에 매설돼 지중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중선로의 경우 전자파 노출 조사가 미비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자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천지역 시민들이 다소 참석해 특고압 송전선로 사업 반대를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박정배 기자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분전반, 각종 기성함 전문기업입니다.

빠른납기, 빠른견적 우수한 품질, 최저의 가격 귀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온 기적은 03-792-1410

우수품질전력배치가 40년전부터 이어오세요.

전국 합 및 차단기 대리점 모집

 옥내노출(1.0T~1.6T) 43,000원	 옥내노출(1.6T) 64,000원	 옥외방수(1.6T) 76,000원
 매입함(1.6T)배위방부식 43,000원	 서스커버(1.2T sts201) 42,000원	



(주)한국산업의 제품은 관공서, 대학교, 공항, 군부대, 아파트, 오피스텔 대기업 건설사등에 납품하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단 귀하의 제품도 정성스럽게 제작해드립니다.

옥내노출(Steel) 1.0t 평당 7,000원대 1.6t 평당 10,000원대	매입 1.6t 평당 7,000원대
미취역위/서스커버, 각종기 성함은은 판매합니다.	서스커버(sts201) 1.2t 평당 4,000원대

문의전화 053-792-1410



전국지사현황

- 수도권지사 TEL 031-431-1413
경기도 시흥시 곡곡천동로 96, C동105호 (평명동)
- 충청도지사 TEL 042-624-772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로 132번길 113 (대화동)
- 경남지사 TEL 055-256-060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9길 74 (봉암동)